

“꾸준한 운동 덕에 액션도 거뜰”

안성기, 영화 ‘사냥’ 거침없는 연기 눈길

올해로 데뷔 59년을 맞는 배우 안성기(64·사진).

다섯 살 때 데뷔해 지금까지 찍은 영화만 160편이 넘지만, 그가 영화 ‘사냥’을 택한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였다.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안성기는 “사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젊었을 적에도 못해 본 액션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이라며 “내가 액션을 한번 해본다는 것에 대한 흥분,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안성기는 ‘사냥’에서 금맥을 찾아 산에 올라온 엽사 ‘동근’ (조진웅) 일행의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 과정에서

정에서 자신이 아끼는 마을 소녀 ‘양순’까지 얽히게 가운데 엽사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기상’ 역을 맡았다.

다수의 사냥꾼과 한 명의 사냥꾼 간에 벌어지는 긴박한 추격전을 위해 안성기는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산을 원 없이 뛰고 찬물에 거침없이 뛰어듬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다.

그는 “‘기상’은 굉장한 상처를 가진 인물”이라며 “그가 ‘양순’을 보호하면서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추적전과 함께 보면 꽤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냥꾼 역할밖에 자신과 ‘양순’을 보호하고자 장총을 들고 탄약을 두른 채 다니는 그의 모습은 흡사 ‘람보’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동근’ 일행이 ‘기상’을 ‘람보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기상’은 람보만큼은 아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탄탄한 몸을 자랑한다.

안성기는 “따로 운동을 더 하진 않았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일주일에 4만 정도 1시간가량 걷기와 달리기, 웨이트를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다만 “40년간 꾸준히 운동을 해오다 보니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몸이 된 것 같다”며 “배우로서 현장에서 연출자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볍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운동을 한 덕에 이번 영화에서 힘을 많이 안 들

이고도 잘 찍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영화를 찍은 그지만, 이번에 비 오는 장면을 실제 비 올 때 찍는 희귀한 경험을 했다.

안성기는 “비 오는 장면을 비 오는 날 촬영한 것은 처음”이라며 “3일 동안 이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동근’ 역의 조진웅과는 두 번째 만남이다.

둘의 만남은 2008년 개봉한 ‘마이 뉴 파트너’에서다. 당시 조진웅은 안성기의 양아들로 출연했다.

안성기는 “그때 혼자 열심히 대사 연습을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힘이 좋고 자신만의 감정과 색을 가진 배우”라고 칭찬했다.

이제 안성기는 웬만한 현장에서는 가장 연장자다. 부담감이나 외로움은 없을까.

“내가 먼저 후배들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내가 가야지, (후배들에게) 오라고 하면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떠나 모두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겸손함은 후배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영화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전히 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냐는 질문은 안성기는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했다.

“배고픔은 변함이 없어요. 늘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싶고,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고, 스태프를 비롯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찍은 영화로 관객을 만나고 싶어요. 영화는 늘 새로움이 연속이라 설레고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유승호

“두독한 배포·유쾌함 김선달 닮고 싶어요”

영화 ‘봉이 김선달’ 첫 코믹 도전

“‘봉이 김선달’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러면 ‘실패했어’, ‘안 될 거야’라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았죠.”

영화 ‘봉이 김선달’에서 ‘김선달’ 역을 맡은 유승호(23·사진)는 진지하고 고민도 많은 20대 청년이었다.

그런 유승호가 새 영화 ‘봉이 김선달’에서 배포가 두독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젊고 유쾌한 사기꾼 김선달을 연기했다.

유승호는 “김선달은 실패해도, 좌절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일 수 있을 것 같은 점이 부러웠다”며 “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격정이 많은 성격”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2000년 일곱 살 때 데뷔한 그는 벌써 17년 차 배우다.

성인이 된 후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리벤저-아들의 전쟁’, ‘무사 백두상’(이상 드라마), ‘조선미술사’, ‘블라인드’ 등 진지하고 심각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유승호는 “코미디는 좋아하는 장르도, 그렇다고 싫어하는 장르도 아니지만 꼭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 좋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대 후 스크린 복귀작인 ‘조선미술사’(2015)에 이어 두 번째 사극이다. 연달아 사극에 출연하는 부담은 없었을까.

유승호는 “‘조선미술사’와 개봉 간격이 길지 않을 텐데 이 작품(사극)을 하는 게 맞을까를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내용이나 캐릭터 등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코미디여서, 모든 장르를 한 번쯤은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김선

달이 거상의 마음을 훔치려고 여장을 하는 부분이다.

김선달의 여장은 원래 현상수배 속 그림으로만 표현할 계획이었으나 유승호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촬영한 장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정작 유승호는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여장을 하기 전에는 예쁘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막상 여장을 해보니 징그러더라”라며 “내 몸이 그렇게 큰 줄도 몰랐고, 눈썹 하며 광대나 골격 하며...그냥 남자더라”라고 웃었다.

대중에게 기억되는 유승호는 ‘바른 청년’이다. 대학교 특례입학을 거부했고, 군대도 연예인지고는 이른 21세에 현역으로 다녀왔다.

유승호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일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대는 본인이 강력히 원해서 한 것이었다고.

“어릴 적 꿈이 군인이었어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군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배우로 살았지만, 일상 속 유승호는 평범한 20대다.

앞으로의 배우 유승호는 어떤 모습일까.

“어릴 때는 억지로 작품을 한 적이 많아서 공감도 못 했고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점점 책임감도 생기고, 나 혼자만 잘해서 돈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잘 녹아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돈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EBS 1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성 PD와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안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1부)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코코코3 09:30 원더볼츠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머리 트이는 아이로 만드는 법)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피짜, 애호박 된장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오 뉴스 12:10 시대감정(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불의 숨바꼭질, 제주>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 14:00 로보카 폴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레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뽀롱뽀롱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재)	20:40 디류 오늘 <꼭 한번 기보고 싶다. 킨론> 20:50 세계테마기행 <아우로를 기다리 2부 - 검은 용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여자의 바다 - 신을 품은 바다> 21:50 EBS 디류프린 <강대국의 비밀-대영제국의 탄생> 22:45 디류영하길 위의 인생 (나무와 두 남자) 23:35 시대감정 24:05 지식채널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종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준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다큐드라마 (역사를 만든 사람들(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포셀	00 MBC 점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감성애니 하루 (재)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디류(재)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55 트트생활체조	00 자동공부착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푸리가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기획 창 55 감성애니 하루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0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결정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평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